

# 일레인 필립스 박사, 미가, 순환도로 밖의 선지자, 세션 5, 미가 4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일레인 필립스 박사와 미가서, 순환선 밖의 선지자에 대한 그녀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5, 미가서 4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가서 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순환 도로 밖의 선지자라는 부제입니다. 비록 그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매우 중요한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가 매우 중요한 노선을 갖게 될 곳은 4장입니다. 토라는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나중에 이를 따라가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고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옵니다. 따라서 다음 한 시간 정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기록해 두십시오. 저는 아주 간략한 역사적 개요와 함께 약간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전 프레젠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장은 매우 대조적이기 때문에, 특히 처음 다섯 절은 앞선 구절과 대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약간만 복습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4장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해 생각하고 4장에서 예루살렘과 시온 산의 지리적 부분에 대한 언급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시간 틀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의 다음 일과 관련하여 지금과 대조되는 그것에 대해서도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원 신탁, 파괴, 그리고 다시 희망적인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앞뒤로 작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에는 21세기의 우리, 특히 서구 교회에 관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교훈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간략한 역사적 개요와 이번에는 Jim Monson의 *Regions on the Run*에서 가져온 매우 유용한 차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전체 차트의 일부입니다.

물론 우리는 입문 강의에서 간략하게 소개했던 8세기의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미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가와 이사야는 그들이 저 아래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요 왕 웃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를 언급했습니다. 그것들은 일종의 배경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6장을 다룰 때에도 이 도표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 개관 후에 몇 가지 메모를 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1장, 2장, 3장을 복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복습의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4장의 시작 부분에서 본 것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erry가 장을 다룰 때 1절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범법에 초점을 맞추었고, 세펠라 성읍들이 심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을 애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수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루살렘 성문은 이 시점에서 중요합니다. 2장, 끔찍한 불의. 측정을 위한 하나님의 응답.

우리는 3장에서 이와 동일한 일들이 훨씬 더 사악하고 심각하게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2장 중간에 전쟁 상황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언급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몇 가지 깨진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걸 봤어요. 그리고 2장의 마지막에는 오히려 갑작스러운 변화로서 목자이시며 왕이신 주님이 등장합니다.

3장, 같은 종류의 것들, 폭력적이고 사악한 지도자들. 그 시점에서 리더십 전체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Perry가 지적했듯이, 그들은 모두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느라 바쁩니다.

거짓 선지자, 점술가, 선견자 등 그들은 대가를 받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응답으로 평화를 약속합니다. 대조적으로, 3장 8절에서 미가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특별히 피흘림으로 시온을 건설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6장에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3장은 주님의 집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것은 심각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약 100년 후에 그것을 언급하거나 미가를 언급하지 않고 같은 말을 했을 때, 당시 장로들은 미가가 이미 그 심각한 사업을 예언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3장의 끝 부분, 즉 12선지서 전체의 중간 지점에 있는 내용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3장 12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놀라운 변화, 곧 회복의 약속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시간을 내어 우리가 이미 본 것, 특히 2장과 3장 사이의 몇 가지 대조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4장의 좀 더 희망적인 모습과 대조해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전 장에서, 그 그림에는 어떤 종류의 거룩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온갖 일을 하여 성소를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4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시작합니다.

게다가 3장에서는 백성들의 악한 우두머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장은 산의 머리부터 시작됩니다. 사용되는 동일한 용어는 분명히 대조됩니다.

3장, 유혈사태로 시온이 세워졌다. 그러나 이제 4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토라가 시온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대조입니다.

1장과 2장에서도 난민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4장이 나올 때쯤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순례 국가들이 있습니다. 참여하게 될 사람들의 유형에 따라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보수를 받으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4장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다가올 것이라는 약속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제사장들은 참된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 부호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시온에서 나오는 주님의 지시, 곧 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좀 더 긍정적인 칼럼을 통해 오른손에 있는 것들 각각에 대해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특히 6절부터 8절까지의 작은 부분에서 언급될 몇 가지 중요한 위치에 대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겠습니다. , 항공사진.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이 사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지금은 언덕 곳곳에 집과 구조물이 가늘게 흩어져 있거나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에 없는 것과는 반대로 이 그림에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을 위해 다음 사항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타원 안에는 다윗이 정복한 작은 언덕의 작은 돌기둥인 다윗의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도 산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작습니다. 아마도 약 11에이커 정도 될 것입니다. 이곳에는 수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워질 지역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있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 강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전을 지을 사람은 솔로몬 자신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성전은 여호와의 전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 성전 위치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것은 다윗 성보다 더 높은 고도입니다. 그러나 그 일반 지역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면 그 주변의 언덕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지는 않지만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 우리가 말하려는 종류의 것들에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오펔(Ophel)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그것을 제시하는 매우 도식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것은 성전 산이 있었을 곳, 성전 산, 성전 플랫폼 등이 있었을 곳의 바로 남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윗 성의 북쪽 끝에서 우리는 실제로 본문에 들어갈 때 다시 그 곳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찾으려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 지역을 둘러싼 언덕은 모두 고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많은 여행으로 이끌 수 있지만 지금은 거기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집의 산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4장을 붙잡으세요.

Ophel 등에 대한 구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명심하고 싶은 몇 가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8절은 Migdal Eder를 언급할 것입니다. 미그달은 망대를 뜻하는 단어이고, 에데르는 무리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Migdal Eder라는 실제 장소를 찾으려고 시도했던 때가 있었지만 아마도 사실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예루살렘 위치의 안전을 언급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펔은 당신이 읽은 번역에 따라 그곳을 요새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새화된 것으로 표현하는 여러 구절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느헤미야서가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서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시대에 도시 곳곳에서 건축에 분주했던 사람들에게

관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오펬을 강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느헤미야 11장 21절에도 성전 종들이 그곳에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전 지역 자체에 가까울 것이라는 점은 이치에 맞습니다.

오벨(Ophel)이라는 단어는 부풀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매우 흥미로운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다윗 성의 북쪽 끝에 있는 지리적, 지형학적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성전산 바로 남쪽에서 약간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다윗 성과 지리와 그 모든 종류의 강의였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것에 대해 좀 더 시간을 할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특히 지금은 딸 시온에 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두 용어가 모두 사용됩니다. 때때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복수형 딸이 사용되는 경우는 더 넓은 지역 주변의 마을과 작은 정착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특히 주님과 그분이 선택한 도시인 시온, 예루살렘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매우 구체적인 의인화인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취약한 관계를 나타내는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그가 그녀를 매우 사랑하고 그녀는 그에게 매우 큰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벌로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형벌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살펴보게 될 하나 이상의 언급은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이 끝날 때쯤에는 이 부드럽고 연약한 예루살렘 딸이 우리를 조금 놀라게 할 수도 있다는 작은 메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을 조금 풀어보기 위해 여기에 몇 구절을 올려놓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물론 이것은 미가 시대보다 약 100년 후의 일이며, 예레미야 시대에는 상황이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요시야 통치 기간에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도망하라.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라. 재앙이 북쪽에서 임박하리라.” 페리는 얼마 전 북쪽에서 다가오는 일들과 북쪽에서 공격해 오는 일들, 심지어는 끔찍한 파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딸 시온을 멸하리라

너무 아름답고 섬세해요. 따라서 그들에게 딱칠 정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부드러움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는 산헤립이 시온과 예루살렘과 히스기야를 모독했기 때문에 그를 대적 하는 신탁에 대한 묘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하자면, 시온의 처녀 딸이 산헤립 당신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예루살렘의 딸은 당신이 도망갈 때 머리를 흔드는데, 이는 아마도 우리가 적어도 미가의 일부에 대한 배경으로 이야기해 온 역사적 맥락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은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네 구원자가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그의 상이 그에게 있고 그의 보상이 그에게 따르느니라. 따라서 희망과 파멸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이 사랑하는 시온의 딸과 주님의 관계를 암시하는 의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리적인 고려사항이고 물론 이에 따른 텍스트적인 고려사항입니다. 시간 프레임을 표시하는 방법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미가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함께 모아서 풀어보고 싶은 몇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나는 이 내용 중 일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Bruce Waltke의 Micah에 대한 기념비적인 논평에 빛을 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갑니다.

4장 1절. 우리는 마지막 날이나 마지막 날에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고려를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서 이 단어가 마지막 때에 위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칠십인역이 이 단어를 종말(eschaton)로 번역한 다음 그 연관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Waltke가 지적한 것처럼 아마도 이것에 대해 좀 더 미묘한 표현을 여러분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구상된 미래를 의미합니다.

상상하는 미래는 말하는 사람의 시대와는 거리가 멀고, 현재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단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만이 아니라 유배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의 회복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원이 어떻게 되든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고 싶은 두 번째 연대순 지표는 종종 미래와 그 너머로 번역되는 문구입니다. 즉, 영원히. 그리고 이것의 일부인 히브리어 단어는 le'olam 인데, 이는 광범위하고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올람은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시간적 고려사항과 공간적 고려사항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Waltke는 우리가 먼 미래와 그 너머, 또는 지금부터 먼 미래로 번역할 것을 제안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매우 이상적인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는 물론 앞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망명과 그 이후의 시간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이상적인 미래입니다.

그 안에는 그 날의 또 다른 시간적 지표가 있습니다. Waltke는 이것이 아마도 마지막 날의 미래의 영광과 매우 암울한 현재 사이의 매개 연결일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에 비해 복소리는 꾸준히 들려오는데,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구절을 주었고,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면서 그 구절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현실이 무엇이든 간에 현재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가와 관객, 혹은 관객의 관점에 가까운 것들은 고난과 구원을 모두 포함할 것입니다.

4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앞으로 다가올 힘든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리적 배경이군요. 일종의 시간적 지향이다.

우리는 미가 4장의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사야 2장과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이미지, 동일한 어법, 이미지의 순서가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텍스트를 모두 복사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곳을 적어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단지 미가와 이사야가 동시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이 매우 친숙하고, 매우 놀랍고, 매우 놀랍도록 희망적인 예언을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언급한 대로 미가서 4장 1절 바로 앞에 여호와의 전의 산 전체가 멸망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파멸에 대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사야서 2장 바로 앞의 1장은 과거의 우상 숭배에 대한 시온의 수치로 마무리됩니다. 나는 어떤 파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종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동일하게 계속합니다. 그러나 미가에서는 우리가 약속을 받은 후에 그에게 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나라가 와서 토라를 배우고 시온에서 나가는 토라를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 미가서 4절에는 안전에 관해 말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칼과 창이 낫과 괭이 등으로 변한 후에 이사야는 간단히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하자”로 끝을 맺습니다.

미가서 5절은 그것을 확장하여 말합니다. “열국은 계속해서 그들의 신들을 따라 행할 것이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 후, 미가는 시온의 딸에 관해 우리가 잠시 살펴보게 될 것들로 옮겨갈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여기서 계속되는 도전인 우상 숭배에 대한 추가 정죄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단지 소개에 불과하므로, 텍스트를 살펴보고 텍스트 자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부터 시작해서 먼저 읽어본 다음, 이 구절을 하나로 묶을 때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울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우리가 알아차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부터 시작되며, 이제 우리는 그것이 광범위한 명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산 꼭대기나 산 꼭대기에 세워지고 다시 여기로 향할 것이다. 대조적으로 로쉬 (rosh)는 히브리어로 전 장의 머리들은 인간 지도자들이었다. 정말 끔찍해요. 그것은 언덕 위로 들어올려질 것이며, 이는 최소한 두 가지 중 하나, 어쩌면 그 이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는 상징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우선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꽤 오랫동안, 특히 언급된 파괴 이후에는 갖지 못했던 명예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으면 아마도 어느 시점에는 지진 같은 격변도 일어날 것이고 아마도 그 언덕이 들어올려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며 2절에 많은 나라가 이르러 그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리로다

평행성이 있으며,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분의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곧 그 일들의 의미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넷째, 토라는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보시다시피, 특히 2절에는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재진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련의 평행법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징적인 장소가 복원될 예정이다.

그것이 바로 여기의 요점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원될 것입니다. 주님의 집의 산은 제가 이미 언급한 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다른 모든 것 위에 솟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우리가 이전에 본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파괴되었습니다. RAZED. 이제 그것은 높아지고 높아질 것입니다.

일종의 연결이죠.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겪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 글썄, 그것은 단계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왕국의 장면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산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죽음을 폐지하실 만군의 여호와, 아도나이 체보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다.

돌이 큰 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산의 이미지와 산의 상징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을 곳, 화해를 이루실 곳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잔치는 가리킨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해야 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스트리밍 중이에요.

그건 그렇고, 스트리밍에 대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다운을 생각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스트리밍을 하고 있고, 스트리밍은 꽤 많은 양을 의미합니다. 이는 계곡을 통해 흐르는 물을 생각할 때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길을 배우려는 의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너무 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이 구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길과 길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방법에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면서, 그것은 그분이 언약 백성을 대신하여 역사상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배우는 것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방식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이것이 모두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이야기 부분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율례, 교훈, 요구 사항에도 열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글썄요, 일단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모든 방법을 그들의 두뇌에 입력해야 하고 그런 다음 추방될 것처럼 들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점은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들도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토라가 시온에서 나오는 방식입니다. 일종의 추상적인 단어가 튀어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Mike와 Isaiah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처럼 구체화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진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배우기 위해 물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가능한 신약성경의 관점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살아 있는 서신임을 언급한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것은 미가서와 유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참고자료도 있습니다.

이사야 51장에서 나는 율법이 나아갈 것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율법은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적인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와 의와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글썄, 그것은 이 놀라운 약속의 신탁의 시작일 뿐입니다. 3절과 4절로 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는 여호와이시니 많은 민족 사이에 판단하시며 강대국들의 분쟁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제적, 세계적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 잠시 멈춰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멀리 있는 강력한 국가를 위해 분쟁을 해결하세요.

그들은 칼을 이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선택의 전쟁 도구, 절단 도구였습니다. 나는 호스가 종종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작은 덩굴손을 가지치기 위해 도구와 창을 칼로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다른 나라를 향해 칼을 들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 4절도 해보자.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살 것이다. 누구도 테러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좋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지적하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면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진정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국제적인 글로벌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까지 심판하실 것인데, 생각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모든 사소한 뇌물 수수와 불의, 그리고 특히 페리가 3장에서 언급한 다른 모든 것들과 대조됩니다. 그러나 이 급진적인 변화의 다음 단계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쟁을 중재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처리될 것입니다. 전쟁은 멈출 것입니다. 전쟁의 이유와 전쟁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고 전체를 재편성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원전 1000년에 그 무기고는 검과 창, 그리고 주로 검과 창과 같은 종류의 것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자주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이를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무기고 환경에 맞게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은 절단 도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칼은 효과적인 팽이가 되기에는 길지 않지만 자르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도 팽이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실제로 무엇인지에 관해 쓰여진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절단 도구나 가지치기 칼로 번역되는 용어는 매우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는 몇 가지 다른 맥락에서 추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고무적인 점은 누구도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모든 전쟁 대학과 사람들이 적대적이고 서로 죽이는 법을 배우는 모든 장소가 사라질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이제 실제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서는 이와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지만 그는 그 표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 도구가

필요한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절단 도구는 한동안 칼로 바뀌고 칼은 창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것을 계속해서 풀면 그 평화는 거짓 선지자들의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모두 불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사야의 글이 아니라 미가서에 나오는데,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확장된 제국 안에 평화가 있었을 때의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약속의 일환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표현되는 곳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한다면 축복 중 하나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와서 그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안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봅시다.

이러한 변화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이 구절들이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신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보장에 기초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말씀의 능력뿐만 아니라 말씀의 순수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진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모든 곳을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가 설명은 이것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우리의 용어 또는 번역인 전능하신 이입니다. 이것은 종종 이것을 번역하지만 그것은

군대, 군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천상의 군대를 위해 사용됩니다. 시편 103편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늘의 갑옷, 즉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에 대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따릅니다. 그들은 그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천군이 그렇게 하고 있고 만군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일이 잘될 것이라는 꽤 좋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가 말한 대로 상황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5절을 잠깐 살펴보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5절은 미가서의 독특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후반부의 짧은 버전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계속해서 각자의 신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우리와 나는 그것을 두 번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으로 영원히 행할 것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훈계나 권고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느라 바쁘지 않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미가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나는 이미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걷는다는 것은 공중의 권세와 세상 신들의 길을 따라 다시 행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걷기는 우리를 구별해 주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미 암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을 고수할 국가들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전에 시온을 향해 몰려들어 주님에게서 배우고 싶다고 선언하는 그 무리에 합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것은 또한 먼 미래와 그 너머로 정의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실한 남은 자들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 기간 동안 어렵고 암울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신실한 남은 자들은 그 확언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돌아볼 만한 좋은 곳은 일종의 권고로서 시편 86:11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하나님 백성의 노래 전통에서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글쎄요, 이것이 바로 미가서의 구절에서 우리가 보아온 것입니다. 이는 제가 당신의 진리 안에서 걷고 처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미가서에서 다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음, 그것은 미가서 4장 첫 부분의 끝입니다. 이제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4절부터 6절까지 해보자. 그 날이 일종의 일시적인 중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날에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름발이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쫓겨난 자들을 내가 모으리라. 그 용어는 너무 자주 사용되지 않습니다. 절름발이라는 용어도 아닙니다.

나는 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누구에게 이 악을 가져왔느냐. 주님은 자신이 이 일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언약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고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지금부터 먼 미래까지 시온 산에서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일시적인 표시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 그리고 너, 오 양떼의 망대, 시온의 무서운 딸아.

안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올 것이다. 자, 이것의 번역은 조금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권세가 네게 임할 것이요 그 나라가 딸 시온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그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이것은 부상당한 무리입니다. 그들은 절름발이입니다. 절름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사람, 천사, 주님과 씨름할 때 나타나는 단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그가 엉덩이에 맞아 절뚝거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절뚝거리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가랴서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40장은 그 목자의 성격에 대해 조금 이야기합니다.

그 목자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다닙니다. 글썄,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이 특별한 부분은 우리의 더 큰 틀인 후기에 그 날에 시간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절름발이와 튀어 나온 이미지는 모두 우리 양을 생각나게 합니다.

2장의 끝은 예루살렘을 향해 물러드는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목자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한 사람들과 쫓겨난 사람들을 모으고 재집결할 것입니다.

쫓겨나는 사람들은 망명자를 지칭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이것을 장거리 종류의 일로 만듭니다. 잠시 후에 그 장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6절 끝 부분에서 주님은 자신임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원인 동사 형태로서 그분이 그들을 현재의 악한 상태로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재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히브리어로는 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6절 끝 부분의 번역입니다. 언약을 지키면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을 때 주님은 친절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일종의 측정 단위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 시온의 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남은 자들을 강한 나라로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망대와 오벨 등에 관해 말한 종류의 것들에 대해 이미 암시 했듯이 시온 산은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2장의 끝에서 이에 대한 암시를 보았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마지막 참고 사항은 구문론적으로 함께 결합하기가 약간 어렵지만 작동하며 두 가지 참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의 지배권과 왕국이 둘 다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종합하든 그것은 이전의 통치였던 다윗 왕조에 대한 일종의 암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일된 군주제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희망과 기대일 것이다. 물론 이는 페리가 곧 다룰 5장 2절에서 보게 될 내용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개된 일련의 작은 신탁, 작은 삽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히브리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긍정적인 느낌을 주는 마무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9절, 이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며 몸부림이 있을 것입니다. 10절, 이제 너희는 나가리라. 글썄요, 그들이 어떤 곳에서는 안전했거나 어떤 종류의 도시에서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다면 외출하는 것이 그 순간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모인 나라들 사이에 적개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1절에 나오는 나라들과는 달리 좋지도 않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서 페리가 그 말을 꺼내게 됩니다.

이제 군대를 집결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처리하기 조금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의 싹이며 이에 대한 다른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이 소리가 익숙한 다른 소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선지자들과 미가가 말장난을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음운론적 유사성과 소리 연결을 통해 흥미로운 일을 합니다.

이제 Atah는 이 부분을 통해 울려 퍼지지만, 직접적인 주소인 당신, 당신, 이것, 저것, 또는 다른 것은 Atah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이 안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 이후에는 8절이 여러분이고 그 다음에는 9, 10, 11절이 여러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의 끝에도달했습니다. 다시 당신에게 긍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글썄, 그것은 우리를 첫 번째 지금 또는 지금 과 함께 9절과 10절로 인도합니다 .

왜 평평 울어? 당신 안에 왕이 없습니까? 아이를 낳는 사람처럼 몸부림이 당신을 사로잡았다는 당신의 조언이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비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상담사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이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몸부림치고 계속해서 몸부림치고 울부짖습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자처럼 몸부림치며 앞으로 나아가라. 이제 네가 이 성읍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들판에 거할 것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으로 올 것이다. 거기에서 당신은 배달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얼마나 일시적인 한 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잠시만 멈춰보세요. 미가는 아시리아의 위기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적 1 위입니다. 여기서 그는 바빌론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일부 학문적 관점을 통해 이것은 이것이 미가서에 훨씬 나중에 추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영의 영감을 받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결국 추방당해야 할 정도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압축된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은 북쪽 왕국처럼 앗시리아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심지어는 그 너머의 구원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훨씬 더 큰 형태로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이후부터 시작하는 이사야서의 후반부에도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외치는 것은 이것이 최고로 큰 외침이라고 말하는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포와 고뇌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명확합니다. 출산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언급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많은 울부짖음,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미가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이 겪게 될 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이 인물을 촉발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그들의 정부 전체가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 정부 제도가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끔찍한 고뇌입니다.

거기에서 잠시 멈춰라. 심표만 있는 줄 알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왔던 내용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특히 아하스 시대에 나선형으로 하락하는 왕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끔찍해요. 왕은 하나님의 언약의 왕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에 없습니다.

조언자, 조언자, 왕도 없고 조언자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의 결과를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의 결과를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슬픈 사실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닙니다(대문자 κ). 그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그의 상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나타난 주 하나님의 칭호 중 하나는 놀라운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정 항목에는 모든 종류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겐 왕이 없습니다. 상담사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왕과 조언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몸부림과 고통, 울부짖음에 관해 생각해 볼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글머리 기호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몸부림은 그들이 곧 도시에서 쫓겨날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시에서 쫓겨난다는 이미지는 출산, 쫓겨남이다. 이제 그들은 그 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일종의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출산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과 마찬가지로 강제로 쫓겨날 필요가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런 느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을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것은 유배로 가는 것, 그 경험의 어둠을 통과하는 것, 그리고 유배되는 동안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제가 읽은 구절에서 그들이 도시에서 나가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캠프에 갈 것입니다.

당신은 도시 외곽에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바벨론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구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엮인 세 개 또는 네 개의 절이 매우 압축되어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긴 렌즈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여러분은 도시 밖으로 나가서 도시 밖으로 배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집과 집, 안정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것은 빈약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원한다면 캠핑을 해보세요. 편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바빌론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유배로 간주됩니다.

처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짧은 비네트가 끝날 때에도 거기에서 전달됩니다. 그들은 바빌론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번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은 배달될 것입니다. 이 작은 것에도 제가 이사야 48장과 다른 곳에서 언급한 구절에서 훨씬 더 확장된 구원의 메아리가 있습니다. 미가서 4장에 관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부분이 더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당신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나라들이 당신을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인용하자면, 그녀가 욱되게 놔두세요, 우리의 눈이 응시 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온에서 전혀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인용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타작마당에 떨어진 곡식 같이 모으시는 그의 뜻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시온의 딸아 일어나서 타작하라 내가 네 뿔을 쇠로 만들 것임이니라 네 발굽은 내가 놋으로 만들 것이요 너는 많은 민족을 쳐부수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불의한 예언자 여호와에게 멸망을 바치고 그들의 권력과 재산을 온 땅의 주님께 바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멈추기를 바랍니다. 이 장이 왜 그토록 갑작스럽고 빠른지 이해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다양한 시간 프레임을 다루면서 모든 종류의 것들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에 대한 또 다른 작은 삽화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국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람은 누구지?'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바벨론에 대한 언급 바로 뒤에 이 내용이 어떻게 병치되어 들어맞습니까? 특히 5장에서 이어질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미가는 이제 자신의 역사적 맥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앗시리아인들이 존재하여 그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도시를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대순으로 그 긴 렌즈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 렌즈는 말하자면 집에 더 가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언급했지만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이 장의 시작 부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기쁨으로 스트리밍하고 서로 시온으로 올라가도록 격려합니다. 이것은 훨씬 다른 그림입니다. 그들은 교육을 위해 시온으로 스트리밍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더럽히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시온을 경멸과 탐욕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들은 시온을 모독하려는 의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공개적인 광경으로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응시하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도시의 종말과 그곳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고 오만하며 탐욕스러운 감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가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감정을 읽을 시간이 없지만 오바द्या는 12절과 그 이후 구절에서 바로 그 같은 것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오바द्या가 에돔을 정죄하고 처음에는 너희가 가만히 서 있다고 말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에돔 사람들은 보는 것뿐 아니라 빼앗는 일에도 관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적대적인 나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임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그들이 당신을 대항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사가 수동태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본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정정한 것입니다. 내 말은, 그들은 그랬지만 누군가, 저는 주님 자신이 그들을 모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종 예언의 내용에 수동 동사가 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 이것은 우주의 주인이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패시브는 그 방향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그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 모으셨고 거기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는 2장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침상 위에서 잔인하고 추잡한 계획을 세우는 반면, 하나님은 이 가족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뒤집으셨다는 측면에서 다시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주님의 계획을 모른다는 결론을 내리거나 실제로 끌어냅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들을 모으셨고, 타작마당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의 더 넓은 의미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면, 머지않아 이 이름, 즉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이 결국 성전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이다. 오늘 강의에서 앞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택과 관련하여 전체 사건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사무엘하 24장에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요점은 그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성전에서 행하고 그것을 더럽히려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타작마당으로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시온의 딸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해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추게 됩니다.

글쎄, 그녀는 꽤 강력하고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화면에 그냥 띄우는 것은 아마도 불공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곤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곤 했고, 제가 "이게 뭐지?"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곤 했기 때문입니다. 치즈 강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니, 그것보다 조금 더 큼니다.

그러니 높이가 최소한 4피트, 4피트 반, 5피트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봅시다. 바로, 타작 썰매입니다.

나는 썰매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관련된 내용과 작동 방식을 설명하면 그것이 가장 적합한 단어입니다. 농업적인 맥락에서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곡식 다발은 타작마당에 펼쳐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람이 닿을 수 있는 시골의 더 높은 고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타작하고 쪽정이가 날아가거나 아쉽게도 떨어져 나가면 바람이 불면 날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곡식을 뿌렸습니다.

원한다면 이 악기를 그 결 위에 놓으십시오. 그 위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습니다. 결을 따라 그릴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그 껍질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키질도 합니다. 자, 내가 이걸 왜 보여주고 있지? 시온의 딸이 타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른 일도 할 것이지만 타작을 할 것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비유적이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 단어가 형벌이나 잔인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아모스 1장에서 나라들을 정죄하는 내용에는 길르앗에 이런 일을 행한 암몬 족속이 포함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람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그것에 대해 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가로질러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참고 문헌인 이사야서 41장을 풀어보고 싶습니다. NIV에서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가 방금 말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했는지.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유적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새롭고 이가 많고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만들 것이다. 때때로 그것은 거기에 있는 돌 조각이었지만 때로는 철이었습니다. 당신은 산들을 타작하고 으스러뜨릴 것이며 언덕들을 거로 만들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의 광범위한 성격을 주목하세요. 당신은 그들을 키질할 것입니다. 바람이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강풍이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그리고 16b절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여호와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무리합시다. 그는 지금 그것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는 그의 백성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시온의 딸이 행할 일에는 세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되어 있습니다.

첫째, 타작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뿔이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굽이 짓밟힐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짓눌려 있습니다. 이것은 미가의 청중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준비시키신 방식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뿔에 찢리는 경우는 분명히 뿔이 있는 동물에게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들은 열왕기상 22장에도 등장하는데, 페리가 일전에 언급한 매우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은 시리아를 상대로 외딴 길르앗에서 전쟁을 벌일지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뿔을 달고 나타나서 이 뿔로 이런 종류의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을 위해 신명기 33장 17절을 언급했습니다. 그 구절은 요셉 지파가 축복을 받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강력한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 그가 뿔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설명한 대로 시온의 딸이 타작할 것이다. 나라들은 부서지고 짓밟힐 것이다. 그녀의 철 뿔로 인해 그것들이 부서지고, 청동 발굽이 짓밟힐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아이러니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시온을 향해 행진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파멸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몰라.

이 부분은 주님께서 그들이 모은 모든 부는 폭력을 통해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됩니다. 그것은 불의를 통해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주님께 바쳐져 멸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 용어의 동사 형태인데, 신명기와 여호수아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타납니다. 명사형과 동사형 모두의 요점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님께 바쳐지고 멸망에도 바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려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사악한 것들은 그 공간으로 끌려들어가서 그곳에서 파괴될 것이다.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묵상을 하겠습니다. 앞서 시편 86편 11절을 언급했는데, 이 시편이 4장 첫 부분의 긍정적인 것들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언급한 대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진리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기억해두어야 할 구절입니다. 내가 당신의 진리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소서. 이제 그것과 우리의 이전 묵상을 끌어내면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걷는 것은 행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기 위해 시온을 향하는 그 거대한 흐름에 합류하여 토라를 구현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기 위해 나가자. 그런 다음 더 넓은 4장에서 마무리됩니다. 현재 세그먼트 중 일부는 어렵지만 우리는 후기에 있고 긍정적인 종점인 종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희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4장을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순환도로 밖의 선지자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일레인 필립스 박사입니다. 5회기, 미가서 4장입니다.